

제약업

9월 원외처방량 기준 대형사 시장점유율 하락률 둔화

제약/바이오 Analyst 김지현 02) 3787-5109 kimchi@kiwoom.com
RA 박나영 02) 3787-5227 irispark@kiwoom.com

- 9월 가집계 결과 원외처방액 전년동월대비 11.0% 감소. 키움유니버스는 12.4% 감소해 시장평균 하회
- 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전년동기 수준의 실적 나타내...나머지 업체는 마이너스 성장
- 판촉활동 자제에 따른 외형 위축으로 키움유니버스 제약업체의 원외처방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하였으나 원외처방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에 그쳐

9월 가집계 원외처방액 전년동월대비 11.0% 감소. 키움유니버스는 12.4% 감소해 시장평균 하회

9월 가집계된 원외처방액은 전년동월대비 11.0% 감소했다. 그룹군별로는 키움유니버스 8개사 합산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2.4% 감소해 시장평균을 하회했다. 외자계 상위 10개사 합산매출액은 9.5% 감소하며 시장평균을 상회하였다. 키움유니버스 8개사가 시장평균을 하회한 이유는 상위사를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시스템 가동,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, 국제청 조사 등 유통거래 감시 강화에 따른 판촉활동 자제,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의 여파로 여전히 의원급의 외형이 위축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.

원외처방량 기준으로 한미약품, 대웅제약, 종근당이 업체 중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

키움유니버스의 업체별 9월 원외처방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미약품(-1.3%)만이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보합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력제품인 아모잘탄(고혈압복합제)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. 원외처방량 기준으로 한미약품은 전년동기대비 0.1% 성장, 키움유니버스(-1.1%)와 전체시장(-0.1%)의 성장률을 상회하며 쌍벌제 시행 이후 이어졌던 의사들의 보이콧이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.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원외처방량 기준 성장률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4.6%, 5.7%로 양사의 우수한 영업력을 증명하였다. 반면에 유한양행, 동아제약 등은 원외처방액과 원외처방량 모두 감소했다.

자체개발신약 중 카나브, 모티리톤 성장세 지속

보령제약의 카나브(고혈압치료제)는 작년 초에 출시된 이후 처방액이 꾸준히 상승하며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. 작년 말에 발매된 동아제약의 위장관개선제 모티리톤은 1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월대비 6.9%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. 그 외의 신약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. 자체개발 신약인 동아제약의 스티렌(위점막보호제)의 9월 매출액은 60억원을 기록, 전년동월대비 10.7% 감소했다. 부광약품의 레보비르(B형간염치료제)는 5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월대비 25.5% 감소하였으며, 유한양행의 레바넥스(소화기약물)는 3억원 (전년동월대비 27.8% 감소), 유유의 맥스마빌(골다공증치료제)은 5억원(전년동월대비 38.1% 증가)의 매출을 기록했다.

키움유니버스 제약업체의 원외처방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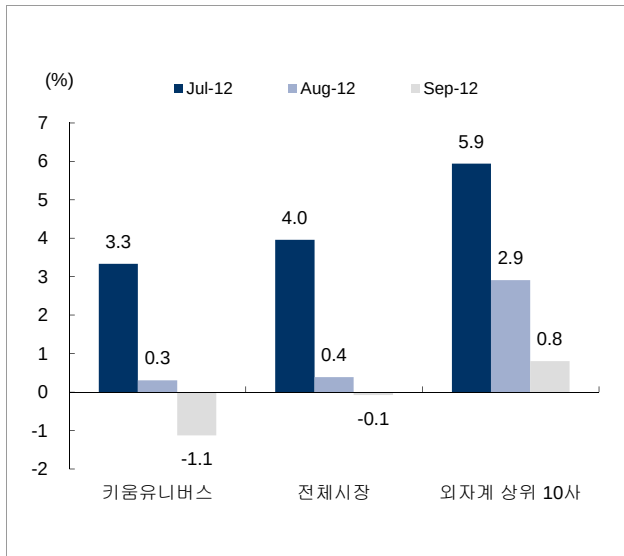
키움유니버스 제약업체 8개사의 원외처방액 합산실적 기준 9월 시장점유율은 판촉활동 자제에 따른 외형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하는데 그친 20.7%를 기록하였다. 외자계 상위 10개사의 원외처방액 합산실적 기준 9월 시장점유율은 22.5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하였다. 원외처방량 기준 키움유니버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수준인 23.8%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월대비 0.2%p 하락한 수치다. 외자계 상위 10개사의 원외처방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위제약사들의 처방량 하락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.

- 당사는 10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업종 의견 'Overweight' 유지하고 대형주인 한미약품, 동아제약에 대한 긍정적 관점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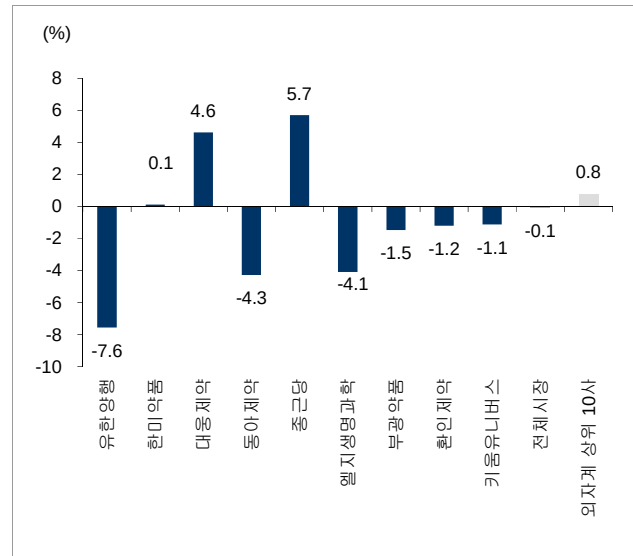
제약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'Overweight'를 유지한다. 당사가 커버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원외처방액이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자체개발 신약의 신규 출시 및 매출 확대 지속, 블록버스터급 신약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발매, 다국적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현지업체와의 완제품 수출계약에 따른 글로벌 시장 진출 등으로 금년 이후 성장 전망이 여전히 밝기 때문이다.

그룹별 최근 3개월간 원외처방량 증감률 (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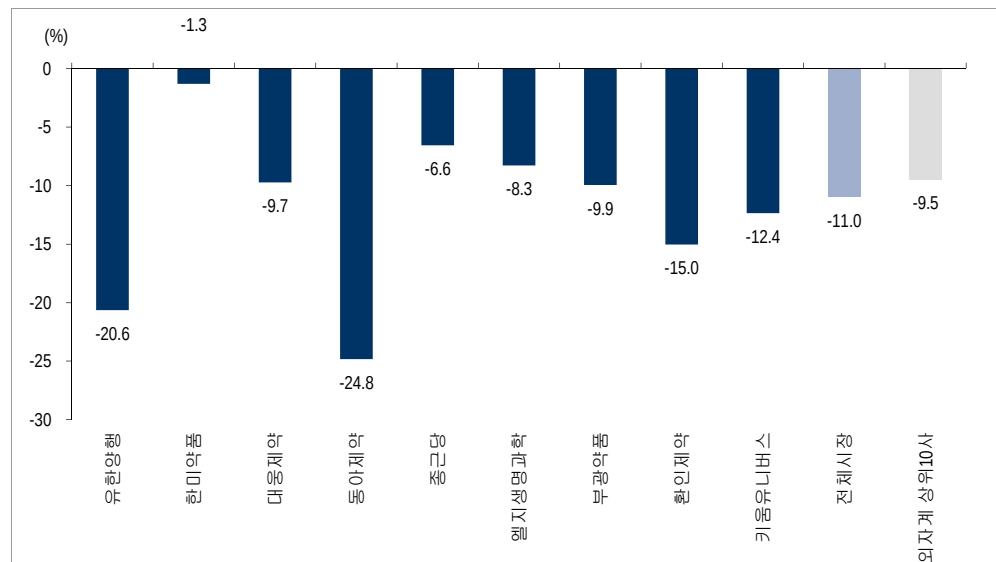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유니버스 업체별 9월 원외처방량 증감률 (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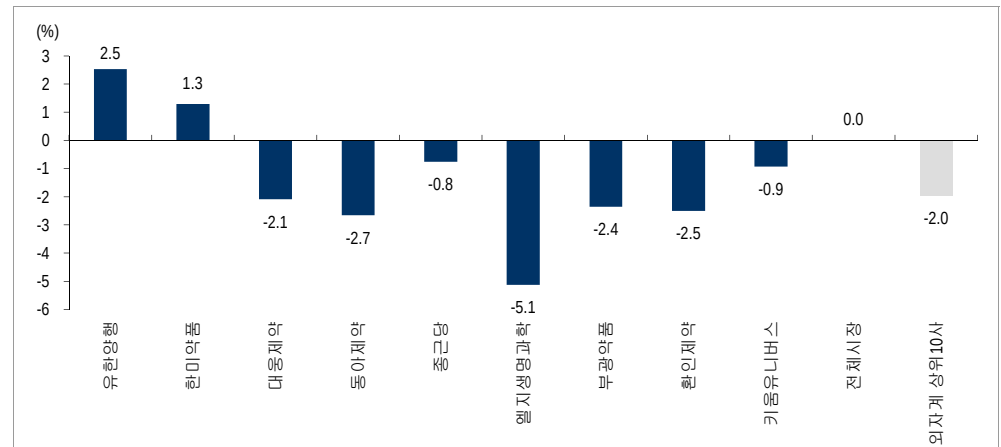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유니버스 업체별 9월 원외처방액 증감률 (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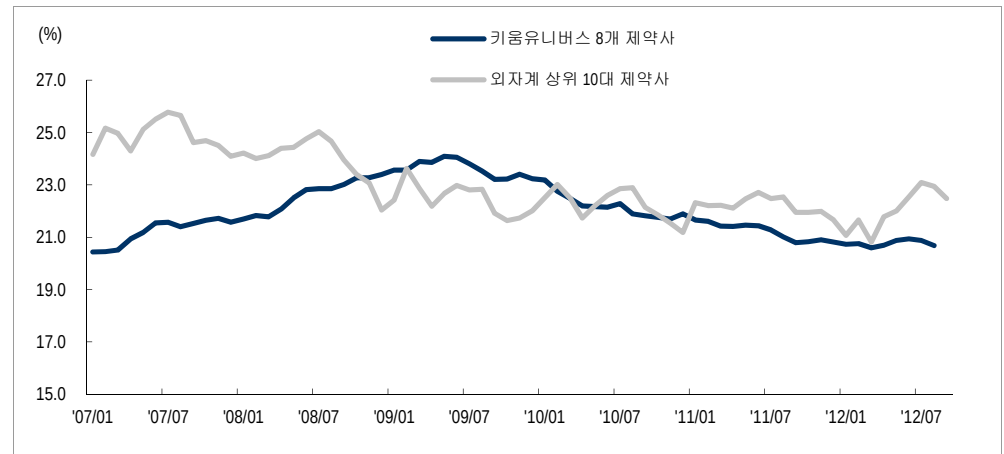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유니버스 업체별 9월 원외처방액 증가율 (전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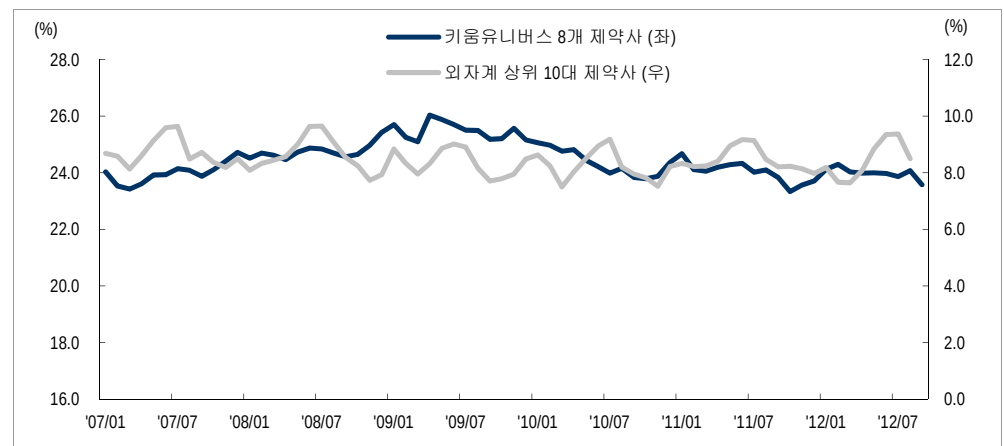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유니버스 제약업체와 외자계 상위 10대 제약사 원외처방액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


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키움유니버스 제약업체와 외자계 상위 10대 제약사 원외처방량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



자료: 유비케어 UBIST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